



수애

# “대중에게 친근한 배우 되고파”

## 영화 ‘상류사회’서 커리어 우먼 변신 박해일과 부부로 호흡 ... 29일 개봉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진 재능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격적으로 신인 때부터 낮을 가리다는 말도 들었고 대중 앞에 서는 배우로서는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9일 개봉하는 변혁 감독의 신작 ‘상류사회’에서 야망으로 얼룩진 미술관 부관장 ‘수연’ 역을 맡은 수애는 도도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가 강한 배우다.

쫄쫄렁 망가질 것 같지 않고 어딘가 날이 서 있을 것 같은 인상에 대중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배우로도 꼽힌다.

이번 작에 남편 ‘태준’ 역으로 출연한 박해일조차 비판 재킷에 금색 하이힐을 신고 복도를 걸어오는 ‘수연’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할 정도다.

22일 서울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수애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직 부족한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예능에도 나가봤고 ‘우리 집에 사는 남자’ 같은 로맨틱 코미디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연기뿐이구나’ 해서 연기에 집중하는데 아직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지점에는 못 간 것 같아요.”

최근 TV에서 유행하는 ‘생활 예능’이나 ‘여행 예능’에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청자가 불편해 채널을 돌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저도 대중에게 친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도 어색하고, 뭘 해도 어색해서 배우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로맨틱 코미디도 저는 좋아서 선택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상류사회’는 상류층이 되고 싶은 경제학 교수 ‘태준’과 ‘수연’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수애는 수연 캐릭터에 대해 “본인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금수저라는 이유로 쉽게 기회를 얻는 것을 목격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빠지는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열정이 야망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연’이 아닌 수애라는 연기자는 배우로서의 자



영화 ‘상류사회’ 중 한 장면. 박해일과 수애.

질이 부족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능에 비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재능이 있었으면 배우로서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작품에서 수연이 태준에게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라’고 하는데 저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는 편이예요.”

수연이 ‘학력위조’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미술사 교수를 연상케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다른 큐레이터분들을 만나 직업적인 특성이나 태도 등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수위가 높진 않지만 이번 작에는 결혼 전 만난 애인 ‘지호’ (이진욱 분)와의 베드신도 포함됐다. 아무리 작품 때문이라 해도 여배우에게 베드신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수애는 “수연의 노출신은 저도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며 “노출신이 현장에서 논의되면 배우가 위축될 수 있는데 감독님이 촬영 전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해줘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극 중 태준과 수연의 관계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친구나 동지 같은 관계로 그려진다. 미혼인 수애에게 결혼에 관해 물었더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혼은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 있는 것 같고 정해진 짝도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저보다는 부모님이 조바심을 냈는데 이제 그 시기도 지난 거 같아요. 지금은 현재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때가 오면 놓치지 않을 생각이예요.” /연합뉴스

# “음원 사이트도 개인 취향 반영돼야”

## 윤종신, 신곡 홍보방식 비판

가수 윤종신(49·사진)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의 신곡 홍보 방식을 비판했다.

윤종신은 오는 24일 신곡 ‘떠나’를 발표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신곡을 음원 사이트 1면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음원 사이트가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원사이트의 최신 앨범 코너에 노출된 음원은 순위 상승에 탄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가요계는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음반유통사가 자사의 제작·유통 음원에 치우쳐 사이트 홈페이지를 꾸민다는 불만을 표시하곤 했다.

윤종신은 “음원 사이트 첫 페이지 최신 앨범 코너는 일종의 마트 입구에 있는 매대에 가깝다. 그곳에 진열돼 많은 사람이 ‘아! 신곡 나왔구나’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매달 첫 페이지 신곡란에 들어가기 위해 유통사와 이리저리 고민하고 상의한다. ‘월간 윤종신’으로 한 달에 한 번 음원을 내는지라 사실 좋은 자리를 꿰차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엔 말 그대로 그냥 음원 ‘업데이트’만 해보려 한다. 저라는 뮤지션에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24일 음원 사이트 피드에서 제 신곡 소식을 알 수 있다”며 “차트에 없어도 우리만의 섬 같은 노래들을 계속 만들 테니 놀라와달라”고 말했다.

윤종신은 “첫 페이지가 음원 사이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매대가 아니라, 사용자 취향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뉴스 가판대가 되면 좋겠다”며 “그게 창작자들에게도, 사용자들에게도 발전적인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신이 오는 24일 공개하는 ‘떠나’는 2013년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 의뢰로 제작한 ‘눈송이빙수’를 편곡한 곡이다. /연합뉴스

# 가상현실 추리예능 ‘도시전설’

## 내달 9·16일 방영

KBS 2TV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미스터리 추리예능 ‘도시전설’을 다음 달 방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전설’은 국내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VR과 게임 등을 이용해 출연자들이 가상세계에 떨어졌다는 설정으로 진행된다.

출연자들은 고립된 장소의 무서움을 극복하고 단서를 통해 미스터리를 풀



어나가야 한다. 다음 달 9일과 16일 밤 11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여기는 자카르타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1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12		10 끝까지 사랑		
1				00 화천기행 스페셜
2	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3	30 여기는 자카르타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2018 아시안게임	30 2018 아시안게임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0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6	00 6시 내고향			
7			55 MBC 뉴스데스크	
8			55 2018 아시안게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8 아시안게임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스포터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30 해피투게더	30 구내식당-님의 회사 유랑기	
12	30 특집 다시 보는 북한문화유산			10 나이트라인 4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비빔당면과 참나물 메밀전)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오락 시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저 푸른 초원 위에 몽골 4부)	12:10 EIDF 2018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35 EIDF 2018 <연상 베토벤>	19:50 배워서 남줄림(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4:00 EIDF 2018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5:05 EIDF 2018	21:30 한국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00 EIDF 2018	<맛진 신세계 말레이시아 4부 자연에 산다 쿠팡>
08:45 팔팔라 뿌우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IDF 2018 <구르는 돌처럼>
09:00 두다다콩	16:30 팔팔라 뿌우(재)	23:05 EIDF 2018 <전쟁전야>
09:30 원더볼즈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4:25 EIDF 2018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7:15 두다다콩	<해비탈 정치인>
10:30 한국기행(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다. 48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60년생 강하고 갖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72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84년생 준비가 덜 되었다면 나설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31</p>	<p>42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54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66년생 발걸음은 느리게 걸어야 한다. 78년생 꼭 잡고 있는 것이 없다. 90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행운의 숫자 : 91, 41</p>
<p>37년생 할 일들이 많아 바쁘다. 49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제도가 들어올 수다. 61년생 붙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73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85년생 침착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74</p>	<p>43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55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67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79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91년생 관리가 부실하다면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7, 37</p>
<p>38년생 기묘하게 연계되어 있으니 다방면으로 주의해야 한다. 50년생 오늘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62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중독적으로는 돈이 관건이다. 86년생 듣고 참고만 하자. 행운의 숫자 : 41, 49</p>	<p>44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56년생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한다면 활로가 보인다. 68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80년생 불가피한 인연으로 영향력 하에 놓인다. 92년생 새끼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07, 05</p>
<p>39년생 일정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깊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63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75년생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87년생 입으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6, 13</p>	<p>45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57년생 가닥이 잡힐 것이다. 69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만 만사가 형통하리라. 93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8, 27</p>
<p>40년생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52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64년생 조건을 날달이 고려한다면 중증을 파악할 수 있다. 76년생 천재일우의 호기다. 88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행운의 숫자 : 47, 64</p>	<p>34년생 최선을 다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46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58년생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70년생 구제와 되면서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느니라. 82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으니 번거로움은 감수하라. 행운의 숫자 : 45, 97</p>
<p>41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53년생 서로 간에 유익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 모색해 보자. 65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89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3, 42</p>	<p>35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47년생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알라. 71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반드시 한계 범위를 이룰 것이다. 83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45</p>